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요즘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수능하기 어려운 인사스타일과 그가 취한 후속조치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중도사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무산과 관련,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대목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이 주도하여 만든 법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벌써부터 인사청문회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거론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물론 일부 언론의 지나친 취재경쟁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의 마구잡이식 보도로 인해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이

임었을 정선적 피해와 이를 목격한 박근혜 당선인의 인간적 고뇌를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른바 신상털기와 같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검증방법조차도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정치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사회의 도덕 윤리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회교육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요청한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그것의 불편함을 이유로 대통령 당선인이 헌행법의 개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는 통치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인사실패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직 후보 사전검증 질문지' 만 받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질문지에는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논문), 직무윤리, 사생활 등 9개 항목에 걸쳐 총 200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들이 예컨대, '미성년 또는 무소속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인사검증은 사회윤리 발전 기여

공직자 스스로도 청렴 노력

공정한 인사 시스템 강구돼야

이사를 미뤘던 사실이 있습니까?' 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답변하도록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초적인 인사검증은 충분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인사절차마저 무슨 이유에서인지 생략하거나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평소의 정치적 박근혜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에게 범야말로 국민과 한 가장 큰 약속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다.

법은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제정할 때의 입법취지를 잃어버렸기 되새기면서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 1천만 불자들은 대통령 취임식 도 하기 전에 인사문제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상심을 격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를 중심으로 국민대통령과 국가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조금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해당 법률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인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필요할 지혜를 모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처음부터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우는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社說

우리는선우, 청년포교 새 모델 되길

1991년 창립해 20여년간 불교계 대표적인 재가신행단체로 발전한 (사)우리는선우가 새해들어 청년포교 특히 군포교에 팔을 걷어 부쳐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말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포교 신념이 한 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이사장은 "기존 중장년층이 주축이 됐던 우리는선우의 포교 활동범위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우리는 선우는 올 한해 군장병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청년불자들을 위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거나 준비중이다.

우선 1공병여단 법왕사서 '88만원 세대를 위한 탕귀 힐링법'을 매주 일요일 개최하고 지식·재능기부와 함께 강의, 공연을 한다. 또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도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법회에 참석하

는 군장병 불자들이 위해 간식을 만들고, 법당과 도량 장엄 등에 참여한다. 특히 재능기부자는 법문,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한 나눔 봉사를 펼칠 인재들이다. 강의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연구, 강의나 법회에 필요한 비프로젝트 등 기자재 를 기부해줄 사람도 찾는다. 후원을 받아 법당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군장병에 대한 지원도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상·스크린을 통해 △수행, 깨어있음의 세계 △삼을 변화시키는 독서법 △군장병들의 미래진로 설계 등 현실에 맞는 강의들을 포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는선우는 청년부다운을 통해 청년불자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인재 불사도 실시한다.

이렇게 청년 불자 포교에 적극 나선 우리는선우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미래 불교, 지성불교, 생활불교'라는 창립 목적처럼 청년 불자들을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지성인으로 키우길 당부한다.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 기대한다

미주 한국불교문화원이 2월 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파인프라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와 불교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광 회장도 자신의 취임사에서 "미주 동포들과 불자들이 앞장서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엇보다 김회장은 메릴랜드의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약탈문화재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을 찾아내고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부처님 진신사리와 사리구의 존재를 확인, 이의 반환을 요구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를 주고 있다.

사실 미국 내 한국문화재는 42,293점에 달한다. 이는 6만여 점이 있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한다. 실제 하버드대 아서 세를리 뮤지엄에 있는 안평대군의 진품 글씨와 지장경 김니 사경들은 미군정 시기 외교관

으로 근무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가져가 1992년 기증한 것으로 그 경로가 매우 불투명하다. LA박물관에 있는 문정왕후가 사용한 왕실 어보도 종묘에 봉안돼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불법으로 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는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간 한국 내에서도 몇몇 문화재 환수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됐고, 일부는 소정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장기적으로 지속돼지 못하고 시들해졌다.

이런 와중에 미국 내 한국문화재를 환수하겠다는 전문 단체가 불교계를 중심으로 설립됐다니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일을 다시 찾아오는 일은 국내외, 승속을 떠나 추진해야 한다. 이들 단체의 행보가 문화재 환수 사업에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오길 기대한다.

봄이 오는 소식



입춘, 멀리 있는 봄

홍사성

앙상한 나무 가지 끝
생바람 지나가는 풍경 차갑다
벌레 한 마리 울지 않는 침묵의 시간
물소리마저 오그라들어
얼음장 밀 숙중인
겨울 작막 깊다
참고 더 기다리라는 듯

햇살 쏟아지는 한낮
지붕 위 흰 눈 녹는 소리 가깝다
추운 들녘 헛기침하며 건너오는 당신
반가워 문열어보는데
새봄 아직 먼 곳에 있다고
처녀들 웃길 여민다
잠시 더 애대우라는 듯

홍사성 시인은...강원도 강릉 출생. 200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내년에 사는 번>과 저서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등 다수가 있다. 현재 <불교평론> 편집인과 <유심>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루코에이 신제품
MSM Glucosaid & Omega3 Cream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120ml x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를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일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능 효과 ◎
▶ 잇몸질환 예방 ▶ 구취 제거
▶ 치주질환 예방 ▶ 시린 이 개선
▶ 충치예방 ▶ 미백효과
▶ 치태제거
200g x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화제의 신간 풍수, 절박한 중귀
'도대체, 풍수가 있을까 없을까?'
'과연 조상님 뒷자리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에 대한 '중귀'를 제시한다는 신간이 나왔다. 저자는 '증거'를 강조한다. 그저 뜬구름 잡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상님 뒷자리가 후손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의 주장은 과연 온통 미신잡설일 뿐인가? 그렇다면 그 오랜 역사는 결국 미신에 집착한 역사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풍수가 있는가 없는가?' 10년간을 이거 하나에 몰두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그 결론을 다음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한다. 첫째, 풍수 있긴 있다. 둘째, 풍수의 핵심은 (氣가 아니고) 靈(혼령 지령)이다. 셋째, 풍수는 과학이 아니다. 한편 저자는 이른바 '명당 발복 사상'은 적극 경계한다. 오히려 부정적이다. 현직 공무원인 저자는 앞으로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풍수 바로세우기'와 '풍수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유명재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44쪽 / 정가 25,000원
유행이 보인다
功念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칭 자미두수 비법 4x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영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4x6배판/이선암전현호 공저/양장본/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풍론
신국판/양장본/신경 지음/26,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자주풀이의 범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자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자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6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평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풍수 양택풍론
신국판/양장본/신경 지음/26,000원